군종주보

2019년 2월 3일(제914호) 연중 제4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영적 시선과 말씀 안에 사는 삶"

오늘 복음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기적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갈릴래아에서 시작한 공생활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과 함께 고향에서는 수많은 소문이 생겼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냉소적으로 비웃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라는 아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봤는데, 얼마나 귀엽고 착한아이였는데 그 꼬맹이가 무슨 기적을 행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 가르침 등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자렛 고향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느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고향 사람들은 그동안 궁금해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선포와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찾기보다 "내가 저놈 다 알아! 이야, 근데 많이 컸네!"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샘을 내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정말 권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기특하게만 바라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답답하고 억울한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완전히 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삶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남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늘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예로 들어서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한 주간, 고통과 고난, 역경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 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박우성(암브로시오) 신부
태풍(28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예레 1,4-5.17-19
화 답 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2,31—13,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4,21-30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한국의 성인 복자 124위 — 박상근 마티아



성인명: 박상근 마티아 (Matthias)
신분: 중인, 아전, 순교자
활동연도: 1837-1867년

박상근 마티아는 경상도 문경에서 아전(하급 관리)을 지낸 사람으로, 중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교리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생활하였다. 또 관청에 있었으므로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박 마티아는 평소에 숙모인 홍 마리아와 친척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비신자 어린이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서 대세를 주곤 하였다. 이후 그는 칼래(N. Calais, 姜) 신부에게 성사를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난 뒤, 박 마티아는 그해 3월 중순경에 좁쌀을 사려고 칼래 신부가 숨어 있던 한실(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성내리)에 갔다가 칼래 신부를 문경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모셔 와서 숨겨 주었다. 3일 뒤 박 마티아는 칼래 신부와 둘이서 새로운 은신처를 찾으려고 다시 한실로 갔다. 이때 칼래 신부는 한실 교우촌이 보이는 산에 오르면서 박 마티아에게 집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였다. 그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칼래 신부의 명에 순종하여 그와 이별하고 집으로 되돌아와 있던 박 마티아는, 얼마 뒤에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 박 막달레나와 함께 체포되어 상주로 끌려갔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그는 "천주교를 봉행한다."고 명백하게 신앙을 증언하였으며, 어떠한 위협과 형벌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상주 옥에는 문경 인근에서 끌려온 교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때 박 마티아는 형벌을 받고 옥으로 돌아오면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고 권면하였고, 많은 교우들이 그러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순교에 이르렀다. 박 마티아는 마침내 관장의 명에 따라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로,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하늘에 희망을 두고

어둠을
뒤로 하고.

하늘에
희망을 두고.

그들 사이를
당당하게
뚫고 걸어 나아갔다.

하늘에
희망을 두고.

성화이야기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과 아기 세례자 요한



성모님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왕좌나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돌을 의자로 삼아 앉아 계시고, 성모님의 발치에는 마치 연못이나 샘 같은 곳의 가장자리처럼 보이는 둔덕과 식물들이 그려져 있다.

왼편의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기대어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모님의 무릎에 있는 작은 책을 자신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며, 책을 달라고 성모님께 부탁하는 듯한 표정이다. 아마도 이 책은 자신의 수난이 적힌 성경책일 텐데,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어깨를 감싸고 계신 성모님은 앞으로 다가올 수난을 알고 계시기에 책을 선뜻 건네주실지 아닐지 알 수 없는, 혹은 주저하는 표정을 보이고 계신다. 분명 당신은 아기 예수님을 이 모든 것에서 보호하시고 싶은 것이리라.

라파엘, 1507년경 제작
패널 위 유화, 122×80cm
파리 루부르 미술관, 프랑스

오른편에 무릎을 꿇은 아이는 세례자 요한으로, 양털로 짠 옷과 십자가를 들고 있으며 시선은 예수님께 향해 있다. 즉 세례자 요한과 성모님의 시선 모두 예수님을 향해 있어, 이 그림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다.

시선과 손들과 자세의 교차 모두 삼각형 구조를 띠고 있어 편안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감정들과 생각이 침묵 속에서 공유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4주일: 이기지 정태화 신부

◆ 군종교구 '앗숨 성가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종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 '군종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종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